

##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신계숙  
배화여대 교수

지구상의 사람들은 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면서 큰소리를 치고 살았다. 그런데 요즘은 큰소리는 커녕 작은소리도 못하게 됐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니 말이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라는 책을 보면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전시에 사망한 사람들 중에는, 전투 부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염으로 발생한 세균에 희생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대목이 나온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여 사는 밀집된 곳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점점 더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으니, 균들은 늘 사람들 곁에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던가. 하지만 적(?)을 파악하고자 해도 정작 그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미물이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런데 지금은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나를 향해 달려드는 다양한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살아야 하니, 내 안에 어떤 능력을 길러야 이 시대를 살아 낼 수 있을지 고민스럽

##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2020 도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다.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 승과 패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찌는 듯한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만든다. 그러나 개막식이나 경기 해설 중 다른 나라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말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세계인의 축제와 함께한다는 의식, 그리고 하나라는 생각이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목할 점은 이번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북이 함께한 2018 평창 올림픽에서의 감격스러운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 한데 요즘은 대선 후보들조차 통일과 대북 관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제단’과 불교의 ‘실천불교승가회’, 그리고 개신교 ‘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와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은 오래 전부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연대해 왔다. 종교인들의 통일운동은 계급적 관점이나 이념적 관점보다는 민족의 양심과 인간에 대한 사

## 기 고



정인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 회장

근래 TV에서는 건축가들이 다양한 모습의 주택을 탐방하거나 새롭고 리모델링한 연예인의 집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자주 방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건축이나 좋은 도시 공간에 대한 특집 방영도 늘고 있다. 이는 건축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건축이 삶 문화의 중심이라는 점을 공유하면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다. 건축의 가치는 건축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소와 관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거시적으로는 사회적 상황이나 경제 수준, 삶 문화에 대한 지향성이 영향을 준다.

거기엔 건축비를 책임지는 건축주의 요구와 법과 제도를 운영하고, 건축 관련 정책을 만드는 행정의 관점도 있다. 특히 행정은 건축 높이의 규제 등 넓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다양한 요소와 관점이 반영되어야 거주지와 지역·환경에 공헌하는 좋은 건축이 된다. 이를 총괄하고 창조적으로 융합하는 일을 책무로 하는 것이 건축사다. 그래서 문화도시라고 하는 외국의 선진 도시들에서는 행정은 물론 시민들도 건축사를 도시 문화를 창조하는 한 축으로서 대접을 한다.

그러나 필자가 건축 설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는 건축사에 대해 문화적 대접이 낮다는 것이다. 특

## 8월 문어에게 배우는 지혜

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운동해서 몸 온도를 높이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일뿐인 듯하다.

요즘 사회적 관계가 줄면서 컴퓨터를 통해 영화와 다큐멘터리 등을 보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 최근 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바다에 사는 문어를 관심 있게 보게 되었다.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이 남아프리카의 바닷속을 찍다가 우연히 문어를 만나서 친구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담은 것인데 제목은 ‘나의 문어 선생님’(my octopus teacher)이다.

내가 문어를 처음 본 것은 몇 해 전 정월 전남 완도의 전복 가두리양식장에서다. 그때 양식장에서 전복을 가두어 둔 틀을 들어올렸는데 전복의 주 먹이는 놀랍게도 다시마였다. 비싼 전복을 먹을 필요 없이 다시마만 먹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켜켜이 쌓인 다시마 틈 사이로 문어가 전복을 먹고 있었다. 현자인 말에 따르면 완도에서는 전복보다 문어를 더 귀한 음식으로 친다고 했다.

문어는 단번질이 풍부해서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계절 별미인데 안동 지역에서는 특이하게도 문어를 제사상에 올린다. 선비의 고장 안동에서 문어를 제사상에 올리는 이유가 있다. 문어의 문자가 글월 ‘문’(文)이어서 웬지 해물 중에서도 똑똑할 것 같아서 올린다는 것이다. 문어는 실제로 똑똑한 해물일까? 2020년에 나온 그 문어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니 확실히 문어는 지능이 좀 높은 것 같다.

다큐멘터리 속 문어는 평화로운 바다에서는 유유자적하게 물살을 가르다. 내가 생각하던 문어는 딱 여기

까지만이었다. 그다음부터 문어는 다양한 개인기를 보여 준다. 바위 아래에 숨어 두 눈만 내놓고 바깥 세계를 살피더니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지 몸 전체를 영지버섯처럼 만들고, 두 발로 바쁜 걸음을 재촉하기도 한다. 위급한 상황이 생겼는지 몸을 동그랗게 만들어 바다표속으로 숨기도 했다.

상어가 공격해 오자 상어를 피해 바위 속에 숨어 있다가 다리 하나를 뜯기자 이내 반격에 나선다. 문어의 빨판에 각종 다양한 조개껍질을 고정해 자신을 조개껍데기 모양의 둥근 물체로 만들어 놓으니, 상어가 문어를 한입에 넣으려 해도 넣을 방법이 없다. 상어가 문어를 포기하는 순간 문어는 상어의 등에 올라타 상어 등에 빨판을 고정해 오히려 상어를 공격한다.

문어의 눈에 게가 보인다. 문어는 차렷 자세로 미동도 하지 않고 눈으로만 게의 움직임을 살피더니, 게가 가는 방향을 확인한 후 전속력으로 게를 향해 돌진했다. 잡히지 않으려고 전속력으로 도망가는 게와 먹이를 놓치지 않겠다는 문어의 한판 대결이 벌어진다. 문어가 몸을 넓게 퍼서 도망가는 게를 뒤에서 바로 보쌌을 해 버리니 게로서는 집게발 한번 써 보지도 못한 채 항복하고 만다.

문어가 노리는 먹이는 게뿐만이 아니다. 게보다 몇 배나 더 큰 바닷가재도 문어를 만나는 순간, 문어의 성찬이 되고 만다. 문어 다큐멘터리를 열 번 스무 번 다시 보기를 계속하면서 이듬값 하는 대서(大書) 더위를 떨쳐 낸다. 그러면서 나는 내 안에 어떤 역량을 쌓아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 낼 수 있을지 생각이 깊어진다.

## 통일의 첫걸음은 용서와 화해에서

랑,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근본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의 장벽뿐 아니라 6·25 병란으로 인한 원한이 겹겹이 쌓여 있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화해의 길을 열 수 없는 상황이다.

겹겹이 쌓인 원한의 씨가기를 털어 내려면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마음,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를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하는 일은 상대적 사랑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이 화해로 가는 길은 반드시 서로를 용서하는 깊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남침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거나 답방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구걸이라고 폄하하는 행동은 결국 화해를 더디게 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물론 과거에 대한 시비를 판 가름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그것이 화해와 통일을 위해 어떤 득이 될 것인가? 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

더욱이 종교적 가르침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자기의 허물이요, 죄임을 자각할 수밖에 없다. 민족의 아픔을 각자의 잘못으로 돌려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성숙된 자세를 가질 때 천지도 감응할 것이며 모든 원한이 녹아지는 해원상생의 세계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을 수용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갖는다면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화해의 신학’과 ‘상생의 교학’을 수립하고 발전시켜 선교와 포교 그리고 교화의 바탕을 삼는다면 종교인들의 통일에 대한 소망과 믿을

이 한결 커지리라 본다.

그동안 정부 당국에서나 민간 사회단체에서 북한 돕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북한이 경제력을 회복하는 데는 아직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남한 경제 역시 어두운 면이 있지만 북한의 상황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퍼주기나 일방적이나 하며 북한 지원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지만 이익이 되는 것은 명확한 일이다. 외교에 있어서 상호주의는 기본이라 할 것이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듯 북한 의 환경과 경제가 잘못될수록 통일의 길은 멀어질 것이며 설사 그런 사정으로 통일이 된다 해도 우리나라의 집이 되고 아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통일은 바로 민족 경제를 튼튼히 하고 급변하는 세계 경제체제에서 우리의 위치를 바로 세우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상호주의 논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와 양보주의가 더 큰 국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도 눈을 떠야 한다.

종교는 그간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북한에 있는 교회나 사찰과 연결한 지원 사업은 선교·포교·교화적 목적도 있기에 신자들의 참여와 호응을 얻는 데 유리한 점이 많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인들의 대북 지원과 협력 운동이 단순한 선교 목적을 넘어서서,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행될 때 공적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도 마음을 썼으면 한다. 부처님께서는 무념(無念)으로 하는 보시가 가장 큰 공덕이라 하셨다.

## 건축의 ‘군맹상평’(群盲象評)을 경계하자

히 행정이 그러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여기에는 건축사의 책임도 있지만, 건축을 바라보는 행정의 ‘군맹상평’(群盲象評)의 시각도 있다.

‘군맹상평’이란 맹인(盲人) 여럿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으로, 자기 주관과 좁은 소견으로 그릇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다. 건축사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건축 심의인데, 심의가 군맹상평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한 개의 건축물이 설계되고, 허가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친다.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도시계획 심의가, 경관 부서에서는 경관 심의가, 공원 부서에서는 공원 심의가, 건축 부서에서는 건축계획 심의가 이루어진다. 거기에 친환경 인증, 무장애 인증 등도 있다.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는 심의 단계가 더 추가되기도 한다.

경험을 통해서 보면 행정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여러 단계의 칸막이식 심의가 좋은 건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동일한 사안이 겹쳐 심의되면서 그 내용이 각기 다르고 정합성을 갖지 못하여 건축사가 어느 심의를 따라야 하는지 당황하는 경우도 많다. 군맹상평식 심의 때문이다.

최근 어떤 광역 지자체에서는 여러 단계의 심의를 통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진일보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심의 내용에도 그러함이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구체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없이 건축설계를 하고, 심의를 한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설계나 심의가 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설계나 심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건축사들은 건축설계를 심의위원들이 한다는 자조 섞인 말을 하기도 한다.

## 社說

## 코로나 확산 방지 ‘젊은층’ 자제 절실하다

광주시가 이례적으로 20~30대 젊은 세대에게 다중시설 이용 자제 등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학 방학과 휴가철이 겹친 데다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직장을 다니는 이들의 고향 방문이 급증하면서 전파력이 빠른 수도권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현재 광주에선 동구 호프집 관련 7명, 광산구 주점 관련 3명, 타지역 확진자 관련 2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유증상자 2명 등 모두 1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광산구 주점에서는 20대 종사자가 26일 확진된 뒤 접촉자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8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동구 동명동 호프집 2곳 관련 확진자 7명도 모두 20, 30대였다. 동구 동명동 호프집 집단 감염은 최근 광주 부모집을 다녀갔던 서울 강남구 거주 20대 회원이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인됐다.

광주시가 젊은층의 경각심을 촉구하고 나선 데에는 이들의 활동량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의 여름방학이 시작된 후 이달 1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 38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1명이 20~30대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술을 판매하는 업소와 카페 등에서 감염됐다. 젊은층의 감염이 늘면서 광주의 일일 확진자 수도 24일 13명, 25일 18명, 26일 23명, 27일 2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젊은층은 고령층에 비해 활동량이 많고 자가 증상도 적어 코로나의 숨은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때문에 젊은층이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지 않을 경우 당국의 방역은 밀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봉쇄 조치에 버금가는 4단계로 격상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젊은층의 자제를 신신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 문화전당 조직개편 차질없이 진행해야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후속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 작제와 조직 개편의 윤곽이 나왔다. 통합되는 문화전당 전당장 공모는 10월께 진행되고, 8전당 재단의 대표는 연말이나 내년 1월께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전당의 새 조직 출범이 지연되고 문화전당장 직급 상황도 이뤄지지 않으면 문화전당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 등 시민협의체는 어제 광주시 동구 전 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특별법 개정안 후속조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작제와 인력 및 향후 후속조치 로드맵에 대한 추진 사항을 알리고 지역사회 제언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나온 보고안에 따르면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해 출범하는 통합 문화전당의 총 정원은 130여명 규모이며

8월 말부터 최소 3개월에 걸쳐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별도로 꾸려지는 문화전당 재단은 정원 30여 명으로 문화전당 직원 채용이 완료된 후 진행된다. 문화전당장 공모는 10월께, 문화전당 재단 대표는 연말이나 내년 1월께 선임 절차가 진행된다.

통합 문화전당은 애초 9월 출범을 목표로 잡았으나 이 같은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직원 채용은 10월께나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연내 출범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더욱이 문제는 통합 대상인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 불안과 기관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 등 후유증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는 아시아문화원이 2015년 아시아문화개발원을 흡수해 출범할 때도 겪었던 전례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시행착오를 이번에는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전당장 직급도 상황 조정함으로써 문화전당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명언이 있다.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가 한 말이다. 이는 야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태권도 중목에서도 이를 실감 나게 보여 준 선수가 있다. 여자 +67kg급의 이다닌. 그는 준결승에서 종료 1초를 남기고 하이킥으로 멋지게 승부를 뒤집었다. 결승에서는 아쉽게 세르비아 선수에게 졌지만, 웃으면서 다가가 ‘엄지척’을 해 주었다. 발보다 더 멋진 마음씨였다.

스포츠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패어플레이를 실천하며, 우정과 연대를 나누는 곳이 바로 올림픽 무대다. 올림픽은 선수들의 피망 어떤 노력이 숨겨진 ‘스토리’와 만나면 더 큰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일본인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조국 한국에 동메달을 안긴 재일교포 유도선수 안창림. 혈액암이라는 병마와 싸워 이기고 마침내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건 태권도의 인교돈. 체제량 통과를 위해 머리카락까지 잘라 내며 사발 투혼을 펼쳤지만 아쉽게 첫 경기에서 패배한 유도의 강유정. 이들의 사연은 하나같이 가슴 뭉클하면서도 눈물겹다.

## 올림픽 영웅들

이번 올림픽에는 한 나라의 스포츠 역사를 새로 쓴 작은 거인들도 있다. 필리핀의 여자 역도선수 하이딜린 디아스는 97년전 기다려 온 조국에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 주었고, 트라이애슬론에서 금메달을 딴 플로라 데피 선수 역시 인구 6만 명의 작은 섬나라 버뮤다도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코로나와 폭염이 궤방을 놓고 있지만 올림픽은 여전히 세계인의 축제다. 저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온 저 많은 선수들 중에 오늘은 또 누가 어떤 감동의 인간 드라마를 쓰게 될지 궁금해진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br>〈대표 FAX 222-4918〉<br>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br>체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br>지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br>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br>본 부 220-0642 |  |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br>(FAX 222-8005) (FAX 222-0195)<br>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br>(FAX 222-0195) (FAX 222-0195)<br>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br>(FA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